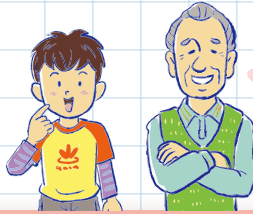


# 중점 전략

미래상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여러 정책 분야를 융합한 11개의 '중점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중점 전략이란?

- 1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 2 '교토다움, 독자성' 과 같은 도시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정책
- 3 행정뿐 아니라 시민 및 기업과 '함께 맘 흘려' 추진하는 정책
- 4 단일 분야뿐 아니라 복수의 행정분야를 '융합' 한 정책

##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생활 및 도시의 변화를 실현하는 '저탄소·순환형 도시 정비 전략'

### 기본 방향

자원·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탄소·순환형 도시의 모습과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기존 축적물(stock)\*의 효과적 활용과 저탄소에 맞는 바람직한 축적물의 형성,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콤팩트한 도시 정비, 녹음과 자연의 보호와 활용,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 및 쓰레기 발생 억제와 자원 재사용의 추진에 의한 쓰레기 감량, 전통기술과 첨단과학기술, 역사와 문화를 융합한 저탄소 시대의 제조산업 창출 등, 세계를 선도하는 대응을 추진한다.

\* 축적물: 도로, 항만, 주택, 공원, 녹지, ·원 등 시민생활의 기반을 말함.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다른 주체도 상정할 수 있지만 각 전략의 표현을 통일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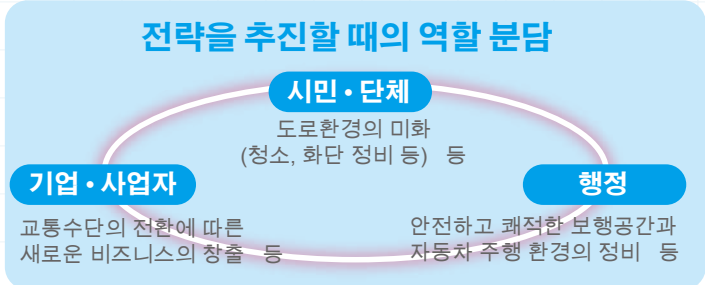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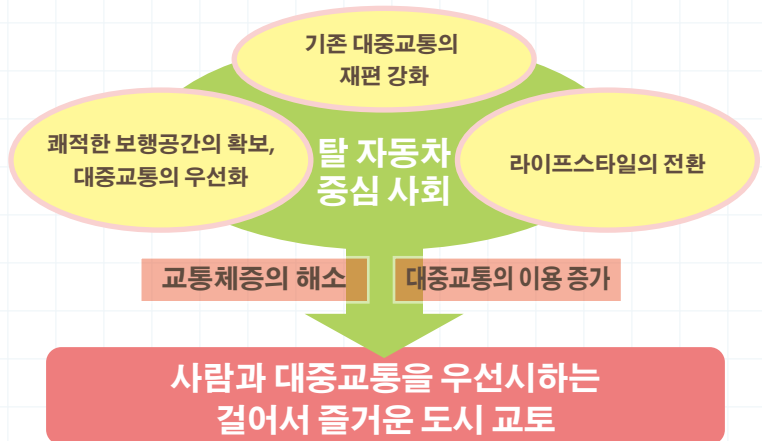
# 사람과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걸어서 즐거운 도시, 교토 전략'

## 기본 방향

관광지와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낳음으로써 과도한 자동차 중심 사회로부터의 탈피를 도모하고, 저탄소형의, 사람과 대중교통을 우선시하여 걷는 것이 즐거운 도시 교토를 만든다.

이를 위해 시조도리나 히가시오지도리 등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우선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통해 걷는 것이 즐거운 생활을 소중히 하는 라이프스타일(생활방식, 삶의 방식)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기존 대중교통의 개편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현명한 자동차 사용'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기관의 CO2 배출량 비교 등을 포함한 동거부여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도, 교통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교통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



# 역사도시의 품격과 매력이 국내외 사람들을 매료하는 '역사·문화도시 창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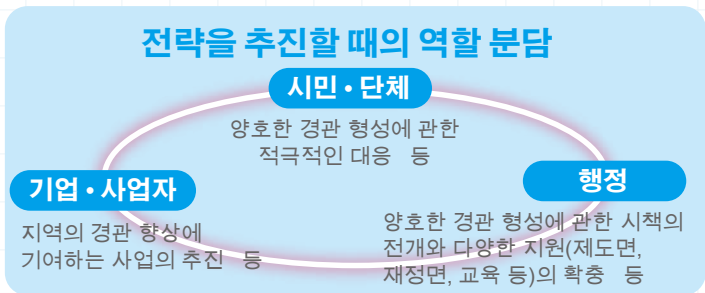
## 기본 방향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높여 전세계 사람들을 매료하고, 사랑 받는 도시의 위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역사의 중층성을 실감할 수 있는 건조물과 정원 등 다양한 경관 자산,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산이 하나가 된 역사적 풍토,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주거 및 생활 문화, 풍부한 감성과 장인의 기술을 갖춘 전통산업 등, 유무형의 교토의 특성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물론, 창조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널리 국내외 사람들에게 알리고 느끼게 한다.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높이며 세계의 사람들을 매료하고 사랑 받는 도시



# 매력 있는 지역 자원과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개성과 활력 넘치는 도시 정비 전략'

## 기본 방향

교토의 정체성\*인 오랜 역사 및 문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각 지역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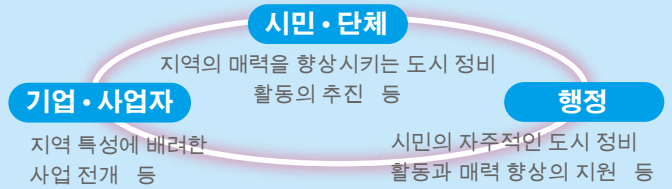
이를 위해 시내 각 지역에 축적되어 온 역사적 건조물과 정원, 전통행사, 경관 등 개성 있는 자원을 활용해 공민 협동에 의한 독특하고 멋진 지역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지하철 선로 부근 오카자키 지역과 야마노우치 정수장 부지 등 큰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대중교통을 활용한 콤팩트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 정체성: 도시를 특징 지우는 개성과 독자성



지역별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정비 추진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 세계가 공감하는

# '여행의 본질\*'을 추구하는 관광전략'

## 기본 방향

국내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여행의 본질을 접하고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시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 제일의 국제 MICE\* 도시로 비약한다.

이를 위해 체류·숙박형 관광, 도보 관광, 진품을 접하는 관광의 확충과 새로운 교토판 만들기,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 시민 자신이 교토의 깊이 있는 매력을 알고, 배우고, 즐기므로써 대접하는 마음을 키우고 교토 관광의 새로운 주체로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관광 스타일의 질과 관광도시로서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적극적인 MICE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회의시설의 확충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호텔의 유치 등 유치 환경의 내실화를 교토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다.

※ 여행의 본질: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만나고, 감동적인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난다. 여행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치유되고, 활기를 얻고, 성장하고, 인생이 깊고 풍부해지는 것.

※ MICE(마이스): 기업의 미팅, 기업 연수 여행, 국제회의, 이벤트 등의 총칭



관광 스타일의  
질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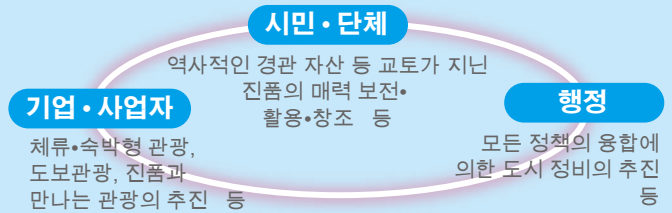
관광도시로서의  
질을 높인다

이를 받아들이는 환경의 내실화를  
교토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

국내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여행의 본  
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시

세계 제일의 국제  
MICE 도시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 교토의 지혜와 가치관을 활용한 '신산업 창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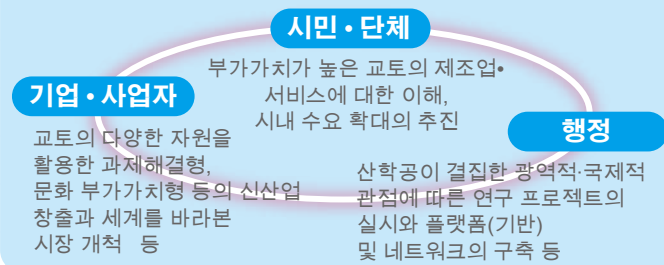
## 기본 방향

가속화되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에게 다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과 사회를 뒷받침하는 경제기반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폭넓은 업종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한 중층적인 산업 구조가 보유한 높은 기술력과 장인의 기술, 산학공(産學公) 네트워크 등 지금까지 교토가 이룩해 온 다양한 지혜를 융합하고 널리 국내외로부터 인재와 자금을 유치하면서 환경, 건강, 콘텐츠, 관광, 농림 등의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창조한다.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주역 육성 전략'

## 기본 방향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활기차게 성장하면서 교토에 대한 애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교토 및 국내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리더와 크리에이터(제작자, 창조자),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온 리더(여론 형성자) 등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키워내고 세계에 배출한다.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도시인 교토의 강점을 살려 배움의 환경을 내실화하고, 젊은이들이 주민자치의 전통이 숨쉬는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토의 깊이 있는 역사를 통해 가꿔 온 진정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행동력과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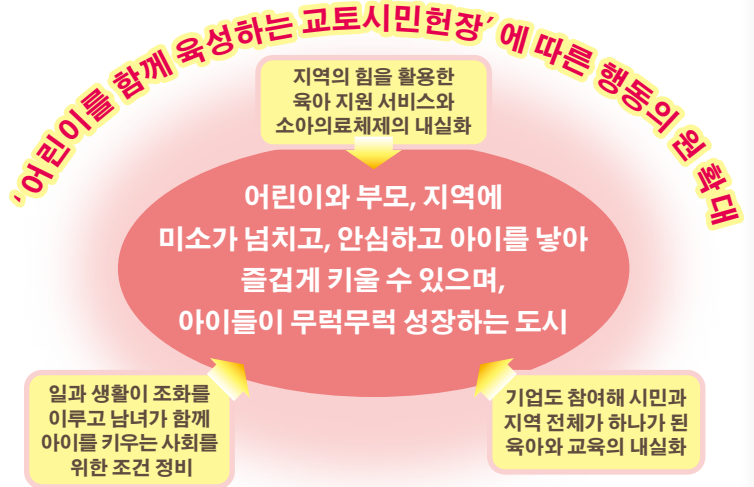


# 어린이, 부모, 지역의 미소가 넘치는 '어린이를 함께 키우는 전략'

## 기본 방향

어린이와 부모, 지역에 미소가 넘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즐겁게 키울 수 있으며,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도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어린이를 키우는 '어린이를 함께 육성하는 교토시민헌장'에 따른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의 힘을 활용한 육아 지원 서비스와 소아의료체제의 확충,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위한 여건 정비, 건전한 육성 환경 정비에 힘쓰고, 기업도 참여해 시민 전체, 지역 전체가 함께 하는 육아 및 교육을 내실화한다.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 시민·단체

어린이를 소중하게 키운다 등

### 기업·사업자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위한 노동 환경의 정비 등

###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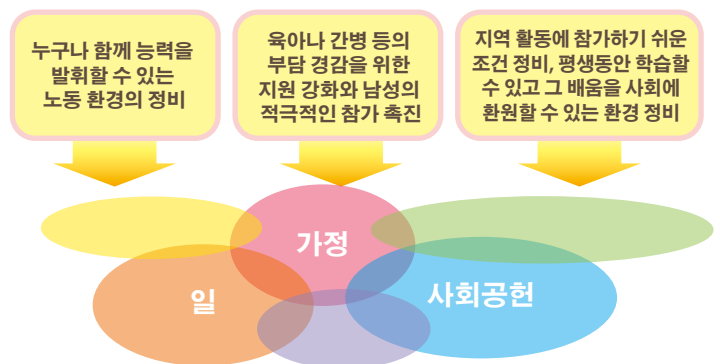
지역의 육아 지원 거점 구축 등

# 일과 가정, 사회공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전략'

## 기본 방향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시민 개개인이 일과 가정생활, 사회공헌 등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누구나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의 정비, 육아나 간병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의 강화와 남성의 적극적인 참가 촉진,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 평생 동안 계속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을 실시한다.



##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정착

## 전략을 추진할 때의 역할 분담

### 시민·단체

남녀가 서로의 능력을 존중 등

### 기업·사업자

장시간 노동의 해소 등

###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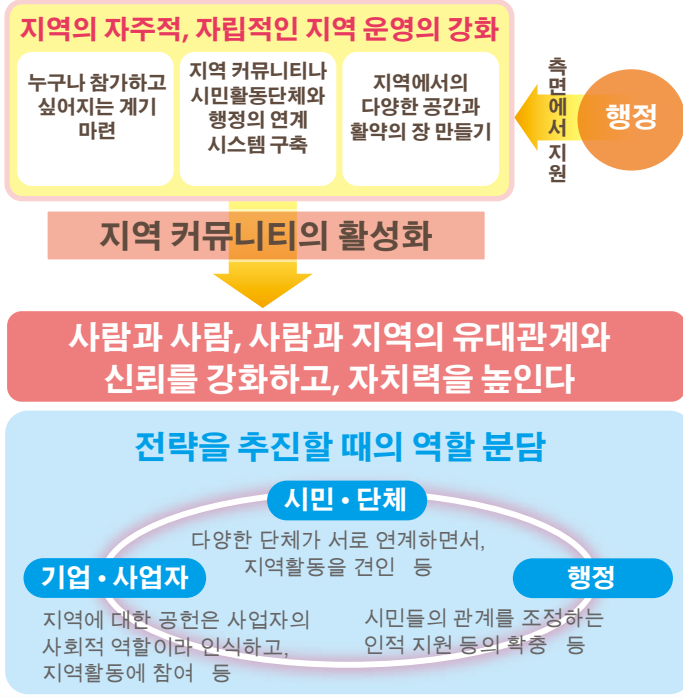
고용·노동 환경의 적정화 등

#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지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 기본 방향

시민 생활의 기반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주민자치의 전통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숨쉬는 반상회와 자치회, 학군, 상점가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간의 연대감과 신뢰를 강화하며 자치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누구나 지역활동에 참가하고 싶어지는 계기 마련, 반상회·자치회 등 지역 커뮤니티나 시민활동단체와 행정의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에서의 시민의 다양한 공간과 활약의 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지역의 자주적,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한다. 이러한 대응을 행정의 측면에서 지원하여 지역의 주체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 안심·안전과 삶의 보람을 실감할 수 있는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전략'

## 기본 방향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 국적 시민을 비롯해 시민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존중 받고, 제 역할을 다하고, 삶의 보람을 실감할 수 있으며, 도시, 교외·산간 지역을 불문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세대를 초월한 일상적 교류의 장, 안정된 치료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복지, 의료, 생활위생, 아동학대 및 DV\*대책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의 정비, 소방·방재, 방범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시스템과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등, 시민, 사업자, 행정의 협동에 의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 DV(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배우자·교제상대 등에 의한 폭력  
\*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나 시설 등을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